



##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조직화 비지땀

### 완성차지부 파업 조직화 현장 순회 ... 금속노조 7월 16일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25일 한국지엠지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현대자동차지부를 찾아 총파업을 조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한국지엠지부 간담회에서 “7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을 순회했다”며 “한국지엠도 외투자본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먼저 내란 당시 한국지엠지부의 헌신적인 투쟁에 감사를 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목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폐기 ▲내란세력 청산 ▲노정교섭 재취 등을 설명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지엠 상황 관련해 정부 태도가 중요하다. 노정 교섭도 중요하지만, 민

주노총 투쟁을 만들고 그 힘으로 여러 테이블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더 열심히 투쟁하고 더 큰 싸움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장창열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지부 간담회에서 7월 총파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집권 초기와 달리 정부는 조금만 지나도 노동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현장을 설득하고 투쟁을 조직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투쟁 6, 교섭 4로 투쟁에 무게중심을 더 주고 하반기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은 7월 19일 주말에 최대한 동력을 집중해서 대통령실과 국정개혁위원회로 행진한다”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문용문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트럼프 관세 문제로 한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상반기는 어떻게든 버텨오나,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완성차보다 부품사에 더 충격이 갈 것이다. 대응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보호 노정교섭, 작업중지권 보장, 노조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7월 19일 반노동정책 폐기와 노정교섭 재취를 걸고 총파업에 나선다.



# 말뿐인 노사상생 ... 광주글로벌모터스, 뒤로는 노조하면 불이익 전남지노위,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또 인정'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 상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탄압 악덕기업이라는 사실이 재차 드러났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 부당징계 등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 탄압을

을 규탄했다. 지난 2024년 7월 김진태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자를 치우라는 사측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 사측은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김진태 지회장에게 1개

월 정직 징계, 파트장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부당보직해임이라고 판정했다. 중노위가 노동자 손을 들자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4년 12월 14일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같은 달 31일 사측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진태 지회장을 보직해임했다. 인사 평가 결과 김지회장이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부당보직해임과 불이익취급, 지배개입을 저질렀다고 전남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전남지노위는 김진태 지회장에 대한 2차 보직해임 역시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최하위 인사평가 부여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직해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법 분쟁에만 골몰한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막 나가는 이유는 대주주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